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4, pp.41-80  
<https://doi.org/10.29212/mh.2025..134.4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조선전기 충청도 연해지역 방어체계 변화와 해미 병영의 구축·정착 과정

유동호 | 육군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조선전기 충청도 연해지역 방어체계의 변화
    - 가. 충청도 연해지역방어 작전개념
    - 나. 육·수군의 정비와 연해지역 읍성의 축조
  3. 해미 병영의 구축 및 정착 과정
    - 가. 충청병영의 이설과 해미병영성의 축조
    - 나. 해미 병영의 기능과 구조
    - 다. 해미 병영의 군사적 위상 강화
  4. 맺음말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전기 충청도 연해지역 방어체계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해미 병영의 구축·정착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 초 연해지역 방어체계 속에서 충청병

영의 이설배경을 살펴보고, 해미 병영의 인적·물적 구조와 군사적 위상을 살펴보았다.

조선 초 조선군은 충청도 연해지역에서 왜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수군이 전선을 이용하여 바다에서 적을 추적·나포하고, 육군이 상륙한 적을 요격하는 수륙협동작전 개념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작전개념 속에서 충청도 육군사령부가 이산에서 해미로 이설되었다.

해미 병영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설과 인원을 보강하였다. 그 결과 둘레 3,352척의 대형성곽 속에 500~600칸에 달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었고, 유방정병을 비롯하여 군관·아전 등이 배치되었다.

조선 전기 병사(兵使)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충청도 연해지역 방어 전략이 군선 중심에서 성곽 중심으로 변하면서 해미 병영의 군사적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또한, 해미현(海美縣) 내에 읍성과 병영성이 공존하면서 충청병사와 해미현감의 품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들이 나타났다. 한편, 많은 명현(名賢)이 해미 병영을 주제로 시문을 남겼고, 이는 해미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어: 해미 병영, 충청병영, 왜구, 읍성, 병마절도사, 연해지역

(원고투고일 : 2025. 1. 8. 심사완료일 : 2025. 2. 20. 게재확정일 : 2025. 3. 4.)

## 1. 머리말

충청도 해미(海美)지역은 앞과 뒤에 천수만과 가야산이 있어 예로부터 해상교통의 요지(要地)였으며, 물산이 풍부한 곳이었다. 또한, 바닷가와 가까워 상륙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유리하고, 주요 진영(鎭營)이었던 이산진(伊山鎭), 순성진(尊城鎭), 남포진(藍浦鎭)과 연계하기 수월한 곳이었다. 이러한 해미지역의 지리적 특성은 조선 초 충청병영(忠淸兵營)이 이산(伊山)에서 해미로 이설(移設)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충청병영이 해미로 이설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병영성이 축조되고, 여러 물적·인적 구조가 마련되었다. 그 이후 충청병영은 해미 병영으로 불리었다. 해미 병영은 조선전기 충청도 육군사령부로 기능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충청도 바닷가의 작은 고을 해미현을 군사적 요충지로 바꾸었으며, 많은 문객(門客)이 주목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따라서 해미 병영 연구는 그동안 미흡하였던 군제사 및 지방사 연구의 필수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해미 병영은 조선후기 해미읍성<sup>1)</sup> 연구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지금까지 고고학·역사학·지리학·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에

1) 조선 후기 충청병영의 청주 이설 이후, 해미병영성(海美兵營城)은 행정적 중심지인 읍치(邑治)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해미현의 군사적 중요성은 변하지 않아, 내포지역의 군사·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호서좌영(湖西左營)이 기존 성안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남아있는 해미읍성은 조선전기에는 군사사령부인 해미병영성이었으며, 조선후기에는 행정·군사적 성격을 모두 지닌 행정성(行政城)이자 진영성(營鎭城)이었다. 이처럼 해미읍성은 군사적·행정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였던 독특한 유적지로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서 해미읍성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sup>2)</sup> 그 결과 조선후기 해미읍성의 연혁·규모·건물지 등이 대략 밝혀졌으나, 조선전기 해미 병영의 모습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다. 이에 해미 병영에 관한 추가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군사사 측면에서 추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략·작전·편제·지휘체제·방어시설 등을 포함하는 방어체계 속에서 설치 배경을 살펴보고, 병사의 임무와 병영의 기능을 바탕으로 병영의 인적·물적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미 병영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하게 조명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전기 충청도 연해지역 방어체계 속에서 충청병영의 이설 배경, 해미 병영의 인적·물적 구조, 군사적 위상 등을 살펴보았다.

2) 해미읍성 관련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김강택·정광용·조용선, 「해미읍성 소고」, 『고고학』 2, 2005 ; 김진우, 「문헌을 통한 해미읍성 고찰」, 『아시아문화연구』 24, 2011 ; 서태원, 「조선후기 해미진영 연구」, 『역사교육』 92, 2004 ; 김희경·이정수, 「해미읍성 객사의 위치 및 건축구성 연구」, 『건축역사연구』 21-3, 2012 ; 서산시, 『해미읍성 복원 및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1995 ; 심정보, 『한국 읍성의 연구: 충남지방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9 ; 유동호,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변화와 하삼도 병영 운영』, 충북대 박사논문, 2014 ; 충남대 박물관, 『해미읍성 내 건물지 발굴보고서』, 1981 ; 이해준, 「해미읍성의 문화사적 성격과 자원 활용」, 『해미읍성 9~12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200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이호경, 「해미읍성 내 관아건물 재고찰」, 『충청학과 충청문화』 16, 2013 ; 임선빈, 「해미읍성의 역사적 변천과 관아문화」, 해미읍성 9~12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200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임선빈, 「조선시대 해미읍성의 축성과 기능변천」, 『역사와 담론』 58, 2011 ; 전중환, 「조선후기 읍성 취락의 경관 요소와 경관 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2015 ; 충남매장문화연구원, 『해미읍성』, 1999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서산 해미읍성 10차 발굴조사』, 2006 ; 『해미읍성: 9차~12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9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해미읍성: 해미읍성 복원정비를 위한 관아지 발굴조사(8차)』, 2013 ; 한서대 박물관, 『해미읍성』, 2007.

## 2. 조선전기 충청도 연해지역 방어체계의 변화

### 가. 충청도 연해지역방어 작전개념

고려 말에 본격화된 왜구의 침입은 조선전기까지 이어졌다. 다만, 왜구의 침략양상이 다소 바뀌었다. 고려 말에는 내륙 깊은 곳까지 침탈하였으나, 조선 초에는 해안과 섬을 노략질하는 수준에 머물렀다.<sup>3)</sup> 침략 규모와 횡수도 감소하였다.<sup>4)</sup> 왜구 침략양상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조선전기 조선의 수군 강화정책이었다.

조선왕조는 건국 이후 수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태조는 “국가의 근심 중 왜구에 대한 근심이 가장 크다”<sup>5)</sup>며 연해지역 방비를 강화하는 한편, 수군제도를 정비하고, 군선을 건조하였다.<sup>6)</sup> 태조는 즉위 직후 왜구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에 회례사(回禮使)를 보내는 비군사적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왜구의 침략은 더욱 거세어졌다. 태조 5년(1396) 8월 왜구가 120여 척의 배를 이끌고 경상도를 침략하였으며,<sup>7)</sup> 10월에는 동래성을 공격하여 조선의 군선 21척을 불태웠다.<sup>8)</sup> 고려 말 왜구와 수차

- 
- 3) 임선빈, 「조선초기 왜구의 동향과 충청지역 상황」, 『이순신연구논총』38, 2023, 288쪽.  
 4) 조선 초기 왜구의 침략은 태조 대에 가장 많았다. 그러나 태종 9년(1409)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였고, 세종 8년(1426) 이후에는 크게 줄었다. 특히 세종 26년(1444) 이후에는 왜구의 침입을 확인할 수 없다.(김도연, 앞의 논문, 2014, 11쪽)  
 5)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5월 7일(신해).  
 6)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7월 5일(무신) ;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8월 8일(정해) ;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12월 15일(계사).  
 7) 『태조실록』 권10, 5년 8월 9일(갑오).  
 8) 『태조실록』 권10, 5년 10월 27일(신해).

레 전투를 벌였던 이성계는 바다에서 군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왜구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수군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sup>9)</sup>

태조의 수군강화책은 태종에게 이어졌다. 태종은 수군의 군액(軍額)을 증강하기 위해 시위패(侍衛牌) 군정을 선군(船軍)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였다.<sup>10)</sup> 이 과정에서 충청도의 선군은 기존 5,537명에서 6,914명으로 증액되었다.<sup>11)</sup> 지속적으로 수군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세종 대 하삼도 수군 비율은 약 70%에 이르렀다. 당시 충청도의 총 군액 11,846명 중 선군이 67%(7,858명), 시위군이 16%(1,974명), 영진군(營鎭軍)이 15%(1,766명), 수호군(守護軍)이 3%(348명)였다.<sup>12)</sup>

그러나 수군 강화책은 내륙방어에 취약하였다. 특히, 내륙 병력이 부족하여 하천을 따라 상륙하는 왜구를 제때 막을 수 없었다.<sup>13)</sup> 태조는 내륙방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육군을 정비하였다. 그 일환으로 태조 6년(1397) 각 도의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파(罷)하고, 연해지역의 각 진(鎭)에 첨절제사를 파견하였다.<sup>14)</sup> 이 과정에서 육군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였던 육수군(陸守軍)<sup>15)</sup>의 일부를 진군(鎭軍)으로 전환하였

9) 고려 말 고려왕조는 연해민(沿海民)을 수군에 충당하고, 전함과 무기를 구비하여 해상에서 왜구를 격퇴할 수 있는 수군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다. 제해권을 장악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침입하는 왜구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수군강화책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었다. 실례로 우왕 3~4년(1377~1378) 군선을 이용하여 강화부와 수원부를 침략한 왜구를 격퇴하는 전과를 올렸다. (『고려사』 권 115, 열전 28 이색; 『고려사』 권 83, 지 37 병지 3 선군 공민왕 22년 5월; 박용한, 「고려 후기 수군 개혁과 전술변화」, 『군사』 54, 2005, 286~299쪽)

10) 『태종실록』 권 23, 12년 1월 25일(경술); 이재룡, 「조선전기의 수군-군역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5, 1970, 116쪽.

11) 『태종실록』 권 26, 13년 9월 1일(정축).

12) 『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13) 『태종실록』 권 26, 13년 9월 1일(정축).

14) 『태조실록』 권 11, 6년 5월 21일(임신).

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병마도절제사를 복설(復設)하고, 병마도절제사가 머무는 영(營)을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군 중 일부를 영군(營軍)으로 편입시켰다. 이렇듯 병마도절제사 폐·복설 과정에서 영진군(營鎭軍)이 편성되었다.

조선전기 강화된 수군과 새롭게 편성된 영진군은 충청도 연해 지역에서 효력을 발휘하였다. 충청도 앞바다인 서해안이 지난 독특한 해양환경 때문이었다. 서해안은 큰 조차, 빠른 조류, 얕은 수심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밀물 때에만 대형 전선이 출항할 수 있었다.<sup>16)</sup> 이 때문에 조선군은 서해안의 해상에서 선제적으로 외적을 격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조선군이 서해안에서 선제적으로 왜구를 격퇴하지 못하자, 왜구들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소규모로 불시에 연해지역을 노략질하였다. 큰 배를 해상에 정박하고, 작은 배를 이용하여 상륙하였던 것이다.<sup>17)</sup> 따라서 충청도 연해지역에서는 전선을 이용한 해상작전 뿐만 아니라 상륙한 적을 요격하는 육상작전도 병행해야 했다.<sup>18)</sup>

조선군은 서해안의 특성과 왜구의 침략 양상을 고려하여 바다에서 수군이 중·소형 군선으로 적을 추적·나포하고, 육지에서 육군의 마병(馬兵)이 상륙하는 적을 신속하게 요격하는 작전개념을 마련하였다. 이 작전개념을 바탕으로 충청도 연해지역에 영진성과 만호영(萬戶營)을 설치하고, 영진군과 선군(船軍)을 배치하였다.

15) 조선 초기 지방군은 육군이었던 육수군과 수군이었던 기선군으로 편성되었다. (정도전, 『삼봉집』 권 8, 「조선경국전」 정전 군제)

16) 민장원, 「조선시대 서해안 해방 전략과 충청도 태안의 전략적 위상 변화, 『역사와 담론』 105, 2023, 60~61쪽.

17) 『비변사등록』 62책, 숙종 37년 5월 20일.

18) 『비변사등록』 61책, 숙종 37년 2월 15일.

〈표 1〉 조선 초 충청도 연해지역의 영진군(육군) 및 수군 배치 현황<sup>19)</sup>

지휘관	소재지	비고
병마도절제사(병영)	해미현	해구에서 6리
병마첨절제사	순성진	해구 안쪽
병마첨절제사	남포진	해구에서 8리
수군도안무처치사(수영)	보령현	서쪽 대회이포
좌도도만호	태안군	서쪽 오근이포
우도도만호	남포현	구정
서천포만호	서천군	장암포
고만량만호	보령현	서쪽 송도포
파지도만호	서산군	북쪽 대산포
당진만호	당진현	북쪽 박지포
대진만호	홍주 임내 신평현	북쪽 대진포

충청도 영진군은 상륙하는 왜구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성곽을 거점으로 해안선과 인접하여 배치되었다. 또한, 기마전에 약한 왜구<sup>20)</sup>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주로 마병으로 구성되었다.<sup>21)</sup> 마병은 상륙한 왜구를 신속하게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해상에서 왜구를 요격·추포하고<sup>22)</sup>, 조운선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충청도 수군은 왜구의 주요 항행로(航行路) 주변에 배치되었다. 충청도 연해지역은 크게 아산만권역(화성시·평택시·아산시·당진시·아산시), 가로림만권역(태안읍~서산 팔봉면), 천수만권역(안면읍·서산시 부석면·홍성군 오천면·보령), 금강하류권역(서천군)으로 구분된다.<sup>23)</sup> 충청도 수군

19) 『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20) 『세종실록』 권 6, 3년 2월 25일(무오).

21) 육군본부, 『한국군제사: 근세 조선전기편』, 1968, 115~116쪽.

22) 『태종실록』 권 15, 8년 1월 2일(신해) ; 『태종실록』 권 16, 8년 9월 12일(정사).

23) 김학태·박지훈·장동호, 「조선시대 충청 수군진 입지의 지형학적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12, 2005.



은 왜구의 잦은 출몰지이며, 조운선의 주요항로였던 가로림만과 금강하류에 주로 배치되었다. 당시 가로림만은 왜구들이 왕래하는 요충지였으며, 조운선의 주요 항로였다. 금강하류는 왜구와 가장 먼저 조우하는 지역으로 왜구가 금강을 통해 내륙으로 진출하는 주요 통로였다. 반면에 천수만은 얕은 수심과 많은 암석 때문에 선박이 항행하기 어려웠으며, 아산만은 해로상 왜구와 가장 먼 곳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덜 위협하였다.<sup>24)</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왕조는 해상에서 왜구를 선제적으로 공격·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군을 강화하는 한편, 내륙방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진군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서해안의 해양환경과 왜구의 침입양상을 고려하여 수군이 바다에서 왜구를 추격·나포하고, 육군이 상륙하는 왜구를 요격하는 수륙합동작전 개념을 마련하였다.

## 나. 육·수군의 정비와 연해지역 읍성의 축조

### 1) 육·수군의 정비

조선 초 충청도 연해지역 방어를 위해 수륙합동작전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육·수군을 강화하였다. 먼저, 수군의 전력강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세종 대 수군의 병력이 육군보다 약 2배 이상 많아졌다. 충청도의 경우, 육군은 3,988명이었으며<sup>25)</sup>, 선군은 8,414명이었다. 세종 대 충청도 수군의 전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4) 『신증동국여지승람』권19, 충청도 태안군 형승조 ; 『세종실록』권82, 20년 9월 10일(신묘).

25) 조선 초 충청도 육군은 시위군 1,974명, 영진군 1,766명, 수호군 248명 등 총 3,988명이었다. (『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표 2〉 조선 초 충청도 수군의 군병 및 군선 수<sup>26)</sup>

지휘관	군 병	군 선
총청수영	1,880명 (선군: 1766명 / 선작: 114명)	40척 (중대선: 6척 / 중맹선: 18척 / 쾌선: 4척 / 중대선: 6척 / 추왜별맹선: 6척)
좌도도만호	1,400명(선군)	15척 (병선: 11척 / 추왜별선: 2척 / 무군선 2척)
우도도만호	1,302명(선군)	19척 (병선: 16척 / 추왜별선: 2척 / 무군선 1척)
서천포만호	797명(선군)	16척(병선)
고만량만호	661명(선군)	10척(병선)
파지도만호	790명(선군)	16척 (병선: 13척 / 추왜별선: 2척 / 무군선 1척)
당진만호	790명(선군)	13척(병선)
대진만호	794명(선군)	13척(병선)
합계	8,414명(선군)	142척

조선왕조는 수군의 병력증강과 함께 군선을 대량으로 건조하였다. 당시 건조된 군선은 주로 왜구를 요격·나포(拿捕)하기 위한 중·소형 군선이었다. 이는 병선(兵船)·쾌선(快船)·맹선(孟船)·추왜별맹선(追倭別孟船)·추왜별선(追倭別船) 등의 명칭에서 잘 드러난다<sup>27)</sup> 실제로 조선의 수군은 해상에서 빠른 군선으로 왜구의 배를 추격·나포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sup>28)</sup> 이러한 전술은 문종 대 제주목사 이명겸이 “적을 제어하는 최상의 전술은

26) 『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27) 민장원, 앞의 논문, 2023, 47쪽.

28) 『세종실록』 권 22, 세종 5년 10월 3일(경술); 『세종실록』 권 25, 세종 6년 9월 20일(임진); 『세종실록』 권 26, 세종 6년 11월 7일(무인); 『세종실록』 권 27, 세종 7년 3월 7일(정축); 『세종실록』 권 42, 세종 10년 10월 16일(갑오); 『세종실록』 권 64, 세종 16년 4월 21일(무진).

수전(水戰)이다”<sup>29)</sup>라고 할 정도로 일정한 실효를 거두었다.

또한, 육군의 전력도 강화하였다. 영진군을 편성하여 연해지역 각 진에 배치하고, 병영과 병마진영을 설치하였다. 충청도의 경우, 태조 6년(1397) 순성진·남포진·이산진 등 3개의 병마진영이 설치되었으며, 침절제사가 파견되었다.<sup>30)</sup> 3개의 병마진영 중 이산에 위치하였던 충청병영이 태종 16년(1416) 이후 해미로 이설되었다. 세종 대 충청도의 영진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조선 초 충청도 영진군의 분포 현황<sup>31)</sup>

영진명	군관 (軍官)	신백정 (新白丁)	수성군 (守城軍)	유방군 (留防軍)	패속군 (牌屬軍)	진속군 (鎭屬軍)	계
해미영	500	148	207				855
순성진		58	50	61	300		469
남포진		39	51	63		300	453
합계							1,777

세종 대 충청도 영진군은 군관·신백정·수성군·패속군·진속군 등을 합쳐 약 1,700명이었다. 이 중 신백정은 충청도에만 있었던 병종이었다. 해미영에 148명, 순성진에 58명, 남포진에 39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신백정은 재인(才人)과 화척(禾尺) 출신의 병종이었다. 평소 수렵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기마(騎馬)에 능하였고, 걸음도 빨랐다.<sup>32)</sup> 조선왕조는 충청도 연해지역의 방

29) 『문종실록』 권9, 문종 1년 9월 28일(계해).

30)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5월 21일(임신).

31) 『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 유동호, 「조선후기 하삼도 지역의 군사편제와 군병조직」, 『군사』 93, 2014, 195쪽.

32) 신백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선빈, 앞의 논문, 2011, 82~93쪽 참고.

어 전략을 고려하여 기동성을 갖춘 신백정을 충청도 영진에만 배치하였다. 왜구가 상륙하였을 때 신속하게 요격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조선왕조는 왜구의 침입 양상을 고려하여 해로 요충지에 수영 및 만호진을 설치하고, 선군(船軍)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성곽을 거점으로 영진군을 배치하고, 기동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적에 대응할 수 있는 육지 방어체제를 갖추었다. 해상과 육상에 걸친 이중 방어선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또한, 연해지역의 수령을 무재가 뛰어난 인물로 임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제로 세종 29년(1447) 의정부는 “연해지역의 수령은 지역별 군사 중요도를 고려하여 임명해야 한다”<sup>33)</sup>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모든 연해지역에 무재가 뛰어난 인물을 수령으로 임명할 수 없었다. 이에 지역별 군사적 중요도에 따라 임명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충청도의 경우, ① 태안·군·남포현, ② 비인현, ③ 서천군, ④ 서산군·해미현·결성현·보령현·당진현 순으로 임명 우선권을 부여하였다.<sup>34)</sup>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들은 왜구의 항행로(航行路)와 가까운 곳이었다.

그러나 연해지역 중심의 방어체제는 내륙방어의 약점을 초래하였다. 또한, 대규모 전면전이 발생하였을 때 영진군만으로 적을 방어하기 힘들었다. 영진별 군병 수가 약 500~800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영진의 해안가 전진 배치는 왜구를 막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으나, 내륙지역 방어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세조 대 내륙방어를 강화하고, 연해지역의 군병을 확충하기 위해 군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였다. 우선 세조 1년(1455) 내지의 군사 요충지를 거진(巨鎭)으로 삼고, 주변의 여러 읍(邑)

33) 『세종실록』 권117, 세종 29년 9월 4일(계사).

34) 민장원, 앞의 논문, 2023, 53쪽.

을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에 배속하였다.<sup>35)</sup> 기존 평안도와 함길도에서 시행하였던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를 확대·실시한 것이다.<sup>36)</sup> 충청도의 경우, 태안(남포)·충주·청주·홍주·공주를 거진으로 설정하고, 태안진의 중익에 태안, 좌익에 서산·해미, 우익에 당진을 배속하였다.<sup>37)</sup>

군익도체제는 세종 3년(1457) 진관체제(鎭管體制)로 변화되었다. 진관체제는 전국의 각 읍을 군사적 거점으로 편성하는 체제로서 한 지역이 점령당하더라도 주변 지역에서 항전할 수 있는 방어체제였다. 진관체제에 따른 충청도 육·수군의 직제와 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충청도 육·수군의 진관체제<sup>38)</sup>

구분	주진 (병사)	거진 (첨절제사)	제진 (동첨절제사)	제진 (절제도위)
육군	충주 해미	홍주	서천, 서산, 태안, 면천, 온양	홍주, 평택, 홍산, 이산, 청양, 대흥, 비인, 결성, 남포, 보령, 아산, 신창, 예산, 해미, 당진
		청주	천안, 옥천	청주직산, 목천, 문의, 회인, 청안, 진천, 보은, 영동, 황간, 청산
		공주	임천, 한산	공주, 전의, 정산, 은진, 회덕, 진잠, 연산, 아산, 부여, 석성, 연기
		충주	청풍, 단양, 괴산	충주, 연풍, 음성, 영춘, 제천
수군	충주 보령	소근포진	당진포, 파지도	.
		마량진	서천포	.

35)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9월 11일(계미).

36)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232~236쪽.

37)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9월 11일(계미).

38) 『경국대전』 권4, 병전 ; 『증보문헌비고』, 병고(兵考) 주군병(州郡兵).

충청도 진관체제에서 육군의 주진은 해미와 충주였다. 해미에는 전임병사(종2품)를 파견하고, 충주에는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를 겸하는 겸임병사를 임명하였다. 전임 병사의 군권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거진은 충주·청주·공주·홍주 등 4곳이었다. 목사가 병마첨절제사(종3품)를 겸임하였다. 홍주 거진 소속의 제진은 군수가 병마동첨절제사(종4품)를 겸하는 서천·서산·태안·온양과 판관 및 현감이 병마절제도위(종6품)를 겸하는 홍주·평택·홍산·덕산·청양·대흥·비인·남포·보령·아산·신창·예산·당진이었다. 군익도체제에서 진관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남포가 거진에서 제외되고, 홍주 거진의 속읍이었던 면천이 태안진의 제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연해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홍주 거진 예하의 방어체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또한, 연해지역 영진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진군을 확충하고, 운용방식을 정비하였다. 세조 6년(1460년) 왜구가 자주 출몰하는 태안진과 남포진의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인근 주현(州縣)의 시위패(侍衛牌)를 태안·남포진의 병력으로 전환하였으며,<sup>39)</sup> 세조 8년(1462)에는 일정하게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영진군의 액수(額數)를 확정하였다. 이때 해미영에 정군(正軍) 500명, 남포진과 태안진에 각 400명, 비인진에 100명이 배정되었다.<sup>40)</sup> 한편, 세조 12년(1466) 충청도 연해지역 영진의 군기도 크게 확충되었다. 당시 충청도 연해지역 영진의 군비 확충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39) 『세조실록』 권19, 세조 6년 3월 12일(기축).

40) 『세조실록』 권20, 세조 8년 6월 28일(신묘).

〈표 5〉 세조 대 충청도 연해지역 영진 군기 내역<sup>41)</sup>

진영	군기 내역
홍주 (침철제사진)	향각궁(鄉角弓) 57장(張), 마전(磨箭) 29부(部), 통전(筒箭) 28부(部), 장창(長槍) 22자루(柄), 중창(中槍) 33자루, 환도(環刀) 57파(把), 궁현(弓弦) 1백 14개, 철갑(鐵甲) 5령(領), 대쟁(大鎗) 1개, 중쟁(中鎗)·소쟁(小鎗) 각 3개, 고(鼓) 2개, 대각(大角) 3개, 소각(小角) 각 3개
서천, 면천, 서산 (동침철제사진)	향각궁(鄉角弓) 36장(張), 마전(磨箭)·통전(筒箭) 각 18부(部), 장창(長槍) 15자루, 중창(中槍) 21 자루, 환도(環刀) 36파(把), 궁현(弓弦) 72개, 철갑(鐵甲) 2령(領), 대쟁(大鎗) 1개, 중쟁(中鎗)·소쟁(小鎗) 각 2개, 고(鼓) 2개, 대각(大角) 2개, 소각(小角) 각 2개
태안 (동침철제사진)	향각궁(鄉角弓) 46장(張), 마전(磨箭)·통전(筒箭) 각 23부(部), 장창(長槍) 18자루, 중창(中槍) 26자루, 환도(環刀) 46파(把), 궁현(弓弦) 92개, 철갑(鐵甲) 3령(領), 대쟁(大鎗) 1개, 중쟁(中鎗)·소쟁(小鎗) 각 2개, 고(鼓) 2개, 대각(大角) 2개, 소각(小角) 각 2개
결성, 보령, 남포 (절제도위진)	향각궁(鄉角弓) 26장(張), 마전(磨箭)·통전(筒箭)·각 13부(部), 장창(長槍) 8자루, 중창(中槍) 18자루, 환도(環刀) 26파(把), 궁현(弓絃) 52개
이산, 대흥, 해미 (절제도위진)	향각궁(鄉角弓) 17장(張), 마전(磨箭) 9부(部), 통전(筒箭) 8부(部), 장창(長槍) 7자루, 중창(中槍) 10자루, 환도(環刀) 17파(把), 궁현(弓絃) 34개

## 2) 연해지역 읍성의 축조

조선왕조는 공세적인 연해지역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작전적 측면에서 읍성을 축조하였다.<sup>42)</sup> 고려 말 왜구는 내륙지역까지 침투하였다. 당시 왜구 대응전술은 산성입보(山城入保)였다. 창·칼 등을 사용하는 단병전(短兵戰)에 능하였던 왜구와 평지에서 싸우는 것은 아군에게 불리하였기 때문이다.<sup>43)</sup> 고려 말 산성 고수책(山城固守策)은 산성수축 사업으로 이어졌다.<sup>44)</sup>

41) 『세조실록』 권39, 세조 12년 7월 12일.

42) 손승철, 「웅천읍성과 제포왜관의 설치와 운영」, 『웅천읍성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11, 140~141쪽.

43) 이장희, 「임란 중 산성수축과 견벽청야에 대하여」, 『부춘 신연철 교수 정년퇴임 기념사학논총』, 1995, 637쪽.

44) 손승철, 앞의 논문, 2011, 140~141쪽.

조선전기 왜구의 침입이 점차 누그러들자 연해지역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백성들을 안집(安集)하여 평지에 읍성을 수축하기 시작하였다.<sup>45)</sup> 그 결과 연해 및 내지 읍성들이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sup>46)</sup> 읍성 축조가 본격화된 시기는 태종 15년(1415) 이후였다.<sup>47)</sup> 특히, 수군과 육군이 이중 방어선을 구축하는 방어 작전개념이 마련되면서,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읍성이 활발하게 축조되었다.<sup>48)</sup>

세종은 왜구를 해안선에서 미리 차단하고, 백성들의 생활 터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읍성 축조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sup>49)</sup> 세종대 읍성 축조는 일정한 원칙 속에 이루어졌다. 세종 11년(1429) 병조판서 최윤덕(崔潤德)의 상언(上言)을 통해 당시 읍성 축조의 기본원칙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0)</sup>

- ① 하삼도 각 고을의 성 중 방어가 가장 긴요한 연변의 고을들은 산을 없애고 모두 읍성을 쌓는다. 그 읍성으로 소용이 없다면 이전대로 산성을 수축하게 한다.
- ② 각 고을에서 성을 쌓을 때에는 각기 그 부근에 있는 육지의 주현으로 혹 3·4읍 혹 5·6읍을 적당히 아울러 정하여 순차적

45) 차용걸, 「행성·읍성·진성의 축조」,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186~187쪽.

46) 차용걸, 「고려말 왜구방어책으로서의 진술과 축성」, 『사학연구』 38, 1995, 186~187쪽.

47) 태종 15년(1415) 호조 및 병조에서 벽골제와 3읍의 성을 수축할 것을 건의함에 전라도 도관찰사 박읍이 장흥·고흥·광양 등 3읍이 모두 바닷가에 있어 왜구가 배를 대는 곳이므로 먼저 수축할 것을 주장하였다.(『태종실록』 권 30, 15년 8월 1일(을축))

48) 읍성은 평소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는 산성과 달리, 백성과 행정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겸하였다. 따라서 읍성 축조는 행정관아를 둘러싼 읍성을 방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책이기도 하였다.(정해은, 『조선후기 국토방위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97~98쪽)

49) 심정보, 앞의 책, 1995, 414쪽.

50) 『세종실록』 권 43, 11년 2월 10일(병술).



으로 축조하게 한다.

- ③ 민호의 수효가 적고 또 성을 축조할 만하지 않은 각 고을은 인읍(隣邑)의 성으로 옮겨 함께 들어가게 한다.
- ④ 각 고을에 쓸 만한 옛 성이 있으면 그대로 수축하고, 쓸 만한 옛 성이 없으면 가까운 곳에 새로운 터를 가리어 신축하게 한다.
- ⑤ 각 고을에 건설하지 못한 성이 있으면 각기 호수의 다소를 참작하여 혹은 물리고 혹은 줄여서 적당하게 개축하게 한다.
- ⑥ 각 고을의 성을 일시에 다 쌓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각기 성의 대소를 보아서 적당히 연한을 정하여 건설하게 축조하도록 한다.

위 원칙에 따르면 방어가 가장 긴요한 연해지역에 읍성을 쌓고, 읍성의 축조는 각 고을의 쓸 만한 구성(舊城)이 있을 때 수축해야 한다. 또한 읍성의 규모는 호수(戶數)의 다소(多少)를 참고하고, 성곽은 일정한 기한 내에 건설하게 축조해야 한다.

조선전기 충청도 연해지역에 축조한 읍성은 대흥·홍산·태안·당진·보령·비인·면천·남포·서천·홍주·결성·서산·덕산·한산읍성 등 총 14개소였다. 모든 읍성은 충청도 연해지역 방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연해지역 읍성을 이용한 전술은 수군의 해상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연해지역 백성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였다. 세종 1년(1419)에 발생한 충청도 비인현 도두음곶 전투가 읍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왜적이 도두음곶(都豆音串)에 침입했을 때, 만호 김성길(金成吉)이 술에 취해 방비를 소홀하였다. 그 결과 적선 32척이 우리 병선 7척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우리 군사 대부분이 전사하였다. ... 적이 승기를 타고 상륙하자, 비인현감 송호생(宋虎生)이 군사를 거느리고 싸웠으나, 병력 부족으로 후퇴하여 현(縣)의 성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적이 성을 두 겹으로 에워싸고 아침 진시

부터 낮 오시까지 공격하였다. 성은 거의 함락 직전에 이르렀다. 서천군사 김윤(金潤)과 남포진병마사 오익생(吳益生)이 군사를 이끌고 도착하여 송호생과 함께 싸웠다. 각각 일급(一級)씩 베어 죽였으며, 호생은 성 밖에 나와 화살에 맞으며 싸운 끝에 한 사람을 사로잡았다. 결국 적이 포위를 풀고 철수하였다.<sup>51)</sup>

위 기사를 통해 도두음곶 전투 상황과 과정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전투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왜적이 도두음곶(都豆音串)에 침입했을 때, 서천포만호 김성길이 대비태세에 태만하여 수군이 해상에서 왜선을 막지 못하였다. 그 결과 왜구들이 비인현에 쉽게 상륙하였다.
- ② 상륙 초기 비인현감 송호생이 군사를 이끌고 전투를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형세가 불리해져 (비인)읍성에 입보하여 공성전을 벌였다.
- ③ 비인현감 송호생은 군민과 병사를 이끌고 공성전을 벌이는 동안, 주변의 남포진병사 오익생과 서천군사 김윤이 병력을 지원하여 왜구를 격퇴하였다.

도두음곶 전투에서 충청도 육군은 읍성을 활용한 공성전과 일정한 거리에 위치한 주변 읍의 적절한 지원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주변 군현에서 제때 지원하지 않았다면, 비인현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즉 진관체제 속에서 읍성 간 거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읍성 간 거리의 중요성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의정 정인지(鄭麟趾) 등이 순찰사 박강(朴薑)과 구치관(具致寬)의 계본(啓本)에 대해 의논하였다. 여러 포는 외곽 방어선이며, 여러

51) 『세종실록』 권 4, 1년 5월 7일.

진은 다음 방어선입니다. 방어거점을 촘촘하게 배치하면 서로 협력하여 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나, 성기면 도로가 멀고 막혀 서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기해년의 비인(庇仁) 싸움에서 현감 송호생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지켰으나, 적이 급히 포위하면서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남포병마사 오익생이 북쪽에 깃발을 세우고, 서천군사 김윤이 동쪽에서 각(角)을 불며 도착한 후에 적이 두려워하야 철수하였습니다. 이는 변방 고을들이 촘촘히 배치되어 가능했었던 일입니다.<sup>52)</sup>

위 기사에서 보듯이 수륙합동 작전개념과 진관체제 속에서 읍성 간 일정한 거리는 매우 중요하였다. 이 때문에 충청도 연해지역 14개의 읍성은 긴급 상황에서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축조되었다. 다음 그림을 통해 충청도 연해지역 읍성이 일정한 간격으로 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충청도 연해지역 읍성 분포현황<sup>53)</sup>

52) 『세조실록』 권 6, 3년 2월 25일(무오).

53) 김도연, 앞의 논문, 2014, 24쪽.

### 3. 해미 병영의 구축 및 정착 과정

#### 가. 충청병영의 이설과 해미병영성의 축조

조선 건국 직후 잠시 주춤하였던 왜구들이 태종대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하였다. 태종은 왜구 방어를 위해 연해지역의 군사시설을 강화하고, 군사제도를 재정비하였다.<sup>54)</sup> 그리고 하삼도의 병영들을 해안 지역으로 옮겼다.<sup>55)</sup> 태종 8년(1408) 합포를 창원부로 승격시켜 경상우도 병영의 소재지로 삼았으며, 태종 16년(1416) 이산의 충청병영을 해미로 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태종 17년(1417)에는 광주의 전라도 병영을 강진으로,<sup>56)</sup> 경상좌도 병영을 경주에서 울산으로 이설하였다.<sup>57)</sup>

충청병영의 이설이 제기된 시점은 태종 16년(1416)이었다. 태종은 “이산의 내상(內廂)이 내륙 깊은 곳에 있으니, 연해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고, 대신들에게 “신유정·김남수·이지실 등이 충청도절제사를 역임하여 이산의 불편함을 잘 아니, 함께 의논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의정부와 육조에서 “이산의 도절제사영(都節制使營)을 고구(古丘)·다지현(多只峴) 등에서 상지(相地)하여 옮겨 설치하기”를 아뢰니, 태종이 승낙하였다.<sup>58)</sup> 태종 17년(1417)에는 총제 이지실(李之實)을 충청도에 파견하여

54) 목포대학교 박물관·강진군, 『강진병영성』, 1991, 57~58쪽.

55) 『세종실록』 권 89, 세종 22년 6월 15일(을유).

56) 『태종실록』 권 33, 태종 17년 1월 4일(신묘).

57) 『태종실록』 권 33, 태종 17년 1월 21일(무신).

58) 『태종실록』 권 32, 태종 16년 12월 2일(기미).

적당한 충청병영 이설지(移設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세종 3년(1421) 충청도절제사영을 해미에 새로 설치하고, 이전 내상이 있었던 옛 성에 덕산현의 치소를 옮겼다.<sup>59)</sup> 결과적으로 충청병영 이설은 태종대 시작하여 세종 대 마무리된 것이다.

조선전기 충청병영 이설의 가장 큰 요인들은 왜구의 침략양상 변화, 해미현의 지리적 이점, 서해안 역로망 정비 등이었다.

고려 말 왜구는 연해지역은 물론 내륙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충청도의 경우, 금강·가로림만·삽교천·곡교천의 주변 내륙 고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sup>60)</sup> 왜구들이 주요하천을 작은 선박으로 이동하면서 노략질하였기 때문이다. 공민왕은 왜구에 대응하기 위해 도순문사(都巡問使)를 파견하고, 이산에 도순문사영(都巡問使營)을 설치하였다.<sup>61)</sup> 이산에 도순문사영을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하천 주변의 고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산은 삽교천과의 거리가 약 4km에 불과하여 왜구가 출몰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사방으로 예산·해미·홍주·면천 등이 맞닿은 내륙교통의 중심지이자 요충지였다.

그러나 조선전기 왜구의 침입 양상이 바뀌면서 이산의 군사적 중요성이 감소하였다. 당시 왜구는 주로 가로림만과 금강하류 바닷가에 있었던 조운선과 조창을 약탈하였다. 다만, 홍수로 강물이 불어날 때는 내륙 깊은 곳까지 침투하였다. 이산의 병영은 바닷가와 멀리 떨어져 연해지역에 왜구가 출몰하였을 때 신속 대응할 수 없었다. 이산 병영에서 바닷가로 병사를 보내려면 가

59) 『세종실록』 권 11, 세종 3년 1월 22일(을유).

60) 고려 말 왜구들은 충청도 지역을 총 49회 침략하였다. 금강 입구에 위치한 임천·한주·옥주·진포 등이 5회 이상 침략을 받았으며, 가로림만에 위치한 서주, 삽교천·곡교천 주변의 영주·목주·홍주, 금강 하류를 따라 위치한 공주·부여·연산·영동 등이 3~4회 피해를 입었다. 반면에 연해지역의 피해는 2회에 불과하였다. (김도연, 앞의 논문, 2014, 12~16쪽)

6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덕산현 고적(古跡).

야산과 덕숭산 사이의 큰 고개를 넘어야 했고, 위치적으로 남포·순성진과 원활하게 연계할 수 없었다.<sup>62)</sup>

반면에 해미현은 바닷가와 의 거리가 약 6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연해지역에 왜구가 나타났을 때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이산·남포·순성진의 가운데 위치하여 영진군을 통제하기 수월한 지역이었다. 또한, 교통의 요지로 사객 접대에 편리하고, 이미 견고한 석성이 있어 공성전에 유리한 곳이었다.<sup>63)</sup>

충청도 연해지역의 역로망(驛路網) 정비도 충청병영 이설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조선전기 서해안 지역에 대대적으로 역이 신설되면서, 아산만 이남의 연해지역 역로망이 크게 정비되었다.<sup>64)</sup> 조선전기 충청도 연해지역 역로망은 금정도(金井道)·시흥도(時興道)·이인도(利仁道) 등 3개 노선이었다. 금정도는 청양-대흥과 청양-보령-결성-홍주-해미-서산-태안으로, 시흥도는 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덕산과 신창-면천-당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인도는 부여-홍산-비인, 부여-홍산-비인, 부여-임천-한산-서천-비인-남포, 공주-정산 등 4개 방향으로 이어졌다.<sup>65)</sup> 충청도 연해지역 역로망은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며,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내륙과 연결되었다. 당시 해미는 보령(남포진), 태안(순성진)과 금정도에 속해 해미 병영은 남포진과 순성진의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다.

결국 태종~세종 대 충청병영 이설은 왜구의 침략양상 변화, 해미의 지리적 이점, 역로망을 이용한 병력 이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62) 임선빈, 앞의 논문, 2011, 80~81쪽.

63)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9월 5일(을묘).

64) 한정훈, 「고려말·조선초 경상도 해안 역로망의 재편성」, 『지역과 역사』30, 2012, 83~84쪽.

65) 『경국대전』 권1, 이전 외관직.

충청병영이 이산에서 해미로 이설되면서 새로운 병영성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태종은 새로 병영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sup>66)</sup> 태종대 시작한 성곽 축조사업은 문종 대 일단락되었다. 당시 해미병영성의 규모(둘레 3,352, 높이 12척 등)는 내포지역에서 홍주읍성(4,856척) 다음으로 컸으며, 하삼도의 다른 병영성과 비슷하였다.<sup>67)</sup> 당시 해미병영성의 규모는 다음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미현 내상성(內廂城)은 주위가 3,352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女牆)의 높이는 3척이다. 적대(敵臺) 18개소 중 16개소는 아직 쌓지 않았고, 문은 4곳이다. 웅성(擁城)이 없으며, 여장이 688개, 해자(海子)의 주위는 3,626척으로 성안에 샘이 3개소가 있다.<sup>68)</sup>

성곽 공사는 문종 1년(1451)에 마무리하였으나, 성곽 개·보축 및 부속시설 건축 공사는 계속 이어졌다. 당시 기록이 미흡하여 해미병영성 중수공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진남문의 인방석(引枋石) 명문(銘文)과 성견(成覩)의 「청허정기(淸虛亭記)」를 통해 해미병영성 중수공사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해미병영성의 진남문(鎭南門) 인방석(引枋石)을 보면, “皇明 弘治四年 辛亥造”라는 명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명문을 통해 ‘성종 22년(1491) 진남문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종

66) 해미에는 고려 때부터 치소를 두었던 석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석성은 오늘날의 해미읍성이 아니라, 반양리에 있었던 소위 고읍성이다. 현 해미읍성은 충청병영이 있었던 병영성이었다. 따라서 조선전기 해미에는 해미현 치소를 두었던 해미읍성과 병사가 주둔하였던 해미병영성이 병존하였다.(이해준, 앞의 논문, 2009, 81~82쪽 ; 임선빈, 앞의 논문, 2011, 76쪽 참조)

67) 강진병영성의 둘레는 2,225척. 창원병영성의 둘레는 3,775척, 울산병영성의 둘레는 3732척이었다. 해미병영성의 규모는 창원·울산병영성보다 약간 작고, 강진병영성보다 컸다.(임선빈, 앞의 논문, 2011, 81~82쪽)

68) 『문종실록』 권 9, 문종 1년 9월 5일(경자).

1년(1451년) 성곽축조가 끝난 이후 약 40년 만에 해미병영성의 정문(正門)이 완성된 것이다. 한편, 성견의 「청허정기」를 통해 ‘진남문 완공 70여 년 후인 성종 22년(1491)에 동·남·북문과 청허정 등을 신·증축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허정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락(永樂) 병신년에 이산에서 이설한 이후, 겨우 남문만이 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나마 70여 년이 지나 성문과 관사(館舍)가 점차 노후화되어 중수하지 않을 수 없다. 병사 조숙기(曹淑沂)가 조정의 허락을 받아 우선 서문의 사영(四楹)을 건축하고, 동·남·북문을 차례대로 보수하였다. 남문에 농석(龕石)과 홍예(虹蜺)를 설치하고, 후원 솔밭에 정자를 지어 청허정이라 이름 지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해미 병영의 성곽축조 공사는 문종 대 종료되었으나, 관사·출입문·청허정 등의 부속시설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증축·중수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부담이었다. 세종 대 읍성 축조 원칙에서 보듯이 성곽축조는 오랜 기간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공사였다. 이 때문에 읍성을 축조할 때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여러 읍의 백성들을 교대로 동원하였다. 해미 병영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 나. 해미 병영의 기능과 구조

### 1) 해미 병영의 기능과 인적 구성

조선전기 해미 병영의 최우선 기능은 충청도 연해지역 방어였다. 세종 22년(1440) “바다에 인접한 요해처를 철저히 방어하기



위해 병영을 연해지역으로 옮겼다”는 최윤덕의 상언<sup>69)</sup>이 이를 입증한다. 실제 해미병영성은 연변제진(沿邊諸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보령의 충청수영과 기각(掎角)의 형세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왜구에 대비하였다.<sup>70)</sup>

해미 병영의 최고지휘관은 충청병사였다. 충청병사의 유사시 임무는 충청도 육군 최고지휘관으로서 제진의 병사를 이끌고 적을 격퇴하는 것이었다. 한편, 평시 임무는 대비태세 구축이었다. 주로 지방군 훈련 및 습진, 무기 제작 및 정비, 군사들의 장비 점검, 군사시설 유지, 지방군 파악 및 징발, 외관(外官) 포폄(褒貶)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병사의 임무는 병영의 여러 관원(官員)과 관속(營屬)이 나누어 수행하였다. 해미 병영에는 병영군과 함께 수많은 관원과 관속이 존재하였다. 『경국대전』병전에 따르면 병영의 구성원은 군사 최고책임자인 병사(1원), 아장(亞將)인 우후(1원), 장교층인 군관(5명), 주둔병인 유방병(375명), 군기를 제작·수선하는 공장(15명), 실무 담당자 아전(나장 30명, 차비군 20명), 외노비(200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실무자는 우후·군관·아전 등이었다. 우후는 병사를 대신하여 도내 지방군의 훈련을 감독하고, 군기를 정비하였다. 또한, 병사 유고시 군사 지휘 및 군무(軍務)를 대리하였다.<sup>71)</sup> 군관들은 진(鎭)·보(堡) 등에 배치되어 군사를 지휘하였다. 이들은 때때로 군기·군자금·군적 업무를 처리하였다.<sup>72)</sup> 아전은 병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였다. 『경국대전』은 나

69) 『세종실록』 권 89, 22년 6월 15일(을유).

70) 『비변사등록』 160책, 정조 3년 4월 27일.

71) 오종록, 「조선초기 병마절도사제의 성립과 운용(상)」, 『진단학보』 59, 진단학회, 1985, 109~110쪽.

72) 오종록, 앞의 논문, 1985, 112쪽.

장과 차비군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병영에는 영리(營吏) 등의 다양한 아전이 존재하였다. 병영의 영리는 병사 관할 각 읍의 향리가 입역하였다. 해미 병영의 구성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미 병영 구성원의 대다수는 유방정병(留防正兵)이었다. 유방정병은 신백정·수성군 등의 병종이 진관체제 정립과정에서 통·폐합된 병종이었다.<sup>73)</sup> 조선 초 지방군은 시위군·영진군·수성군·익군(翼軍) 등 다양한 병종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지방군의 병종을 정병으로 통합하는 정책은 세조 대 시작하여 성종 대 일단락되었다.

성종 6년(1475) 전국 정병의 총액은 유방정병(留防正兵) 25,200명, 번상정병(番上正兵) 약 27,600명, 토병(土兵) 19,284명 등 총 72,105명이었다. 당시 충청도의 정병은 유방정병 대상자 4,500명, 유방정병 1,125명, 번상정병 대상자 8,000명, 번상정병 1,000명 등 총 12,500명이었다.<sup>74)</sup> 이 중 해미 병영의 유방군은 약 375명이었다.<sup>75)</sup> 앞의 <표 3>을 통해 살펴본 해미영의 신백정·수성군 등도 성종 대 유방군으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 2) 해미병영성의 규모와 부속시설

해미 병영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각 구성원이 맡은 직무

73) 『성종실록』 권 9, 6년 9월 10일(병진) ; 유동호, 앞의 논문, 2014, 197쪽.

74) 세조 5년(1459) 번상하는 시위패 가운데 말이 있는 사람은 정기병(正騎兵), 말이 없는 사람은 정보병(正步兵)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기병과 정보병을 정병(正兵)으로 호칭하였다. 또한, 세조 10년(1464) 영진군과 수성군도 정병에 통합하였다. 그결과 다양한 지방군들은 정병으로 통합되어 진관체제 안에서 운영되었다. 일반 농민은 정병과 수군 가운데 하나에만 속하게 되었고, 정병 대상자는 영진(營鎭)에 부방(赴防) 및 번상(番上)하였다. (『세조실록』 권 18, 세조 5년 11월 1일(기묘) ; 『세조실록』 권 34, 세조 10년 9월 20일(경오))

75) 『경국대전』 권4, 병전.

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넓은 부지와 다양한 시설물이 필요하였다. 실제로 해미병영성은 둘레 3,352척으로 내포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이었으며, 성내에 다양한 공해(公廩)와 시설물이 존재하였다. 다음 기사를 살펴보자.

임금이 “병영을 이설한 후, 그 형태가 잘 갖춰졌는가?”라고 묻자, 김홍욱(金弘郁)이 “대충 수리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본 옛 병영은 버리기에는 아까운 곳이었습니다. 성지와 관사는 모두 온전하며, 바다 경관도 아름다워 별다른 정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반드시 퇴락할 것입니다. 현재 성 내에는 적어도 500~600칸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창고도 많이 있는가?”라고 다시 묻자, 김홍욱이 “창고도 그 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sup>76)</sup>

위 기사는 효종과 전 충청감사 김홍욱(金弘郁)이 나눈 대화를 담고 있다. 대화 시점은 충청병영을 해미에서 청주로 이설한 직후인 효종 3년(1652)이다. 이 기사를 통해 해미병영성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창고를 포함한 공해의 수가 약 500~600칸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기록이 미흡하여 조선전기 해미병영성의 공해 및 시설물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기 어렵다. 다만, 조선후기 해미읍성의 기록을 담고 있는 『여지도서』, 『해미현 지도』, 『서산군지』 등의 자료와 청주병영성의 사례를 통해 해미병영성의 공해 및 시설물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세 자료에 나타난 조선후기 해미읍성 내 공해 및 시설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76) 『승정원일기』 124책, 효종 3년 9월 4일(병신).

〈표 6〉 조선후기 해미읍성 공해 및 시설물 현황<sup>77)</sup>

여지도서(18세기)	해미현 지도(1872)	서산군지(1927)
동헌 9칸	동헌	동헌 31평 7흡 7작
아사 19칸	아사	내아 12평 4흡
객사 36칸	작청	객사 105평 6흡 5작
장관청 7칸	사령청	장관청 10칸
군관청 8칸	향청	교련청
교련청 8칸	장청	작청 28평 3흡 8작
작청 12칸	급창청	사령청 8평 3흡 2작
사령청 7칸	책방	장청 11평 8흡 1작
	내삼문	책방 8평 8흡
	외삼문	내삼문(호서좌영) 11평 8흡 7작
	내창	누문(읍해루) 9평 6흡
	군기고	아관청 20평 2흡 8작
	화약고	현사청 12평 3흡 2작
		옥사 7평 3흡 6작
		관노방 12평 5작
		고자실 5평 7흡
		객관외삼문 10평 9작

세 자료를 통해 조선후기 해미읍성 내에 동헌·아사·객사·장관청·군관청·장청·교련청·작청 등 관원들의 직무시설과 향청·사령청·급창청·책방·군기고·화약고 등의 부속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해미읍성 내 공해 및 부속시설은 100여 칸이다. 그러나 조선전기 해미병영성의 공해 및 부속시설의 규모는 해미읍성보다 훨씬 컸다.

해미병영성과 해미읍성의 공해 및 부속시설의 규모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조선후기에 충청병영이 청주로 이설된 후, 해미읍성 안에 해미현 치소와 호서좌영(湖西左營)이 들어서면서 해미병영성과 성격과 규모가 다른 시설물들

77) 임선빈, 앞의 논문, 2011, 97~98쪽.

이 새롭게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효종 8년(1657)에 발생한 화재로 많은 시설물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sup>78)</sup>

한편, 조선후기 청주병영성을 통해 해미병영성의 공해와 부속 시설의 내역과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법제상 해미병영성과 청주병영성의 인적 구성원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sup>79)</sup> 두 병영성의 성곽 및 건축물의 규모도 비슷하였기 때문이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청주병영성의 둘레는 3,328척 5촌이며, 높이는 8척 8촌이다. 청주병영성 내 시설물 규모는 470여 칸이었다.<sup>80)</sup>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7〉 조선 후기 청주병영성의 공해 현황<sup>81)</sup>

건물명	규모(間)	용도
청진당(淸塵堂)	12	병사 처소
삼석당(三錫堂)	12	병사 政務를 보는 곳
후당(後堂)	8	책을 두는 곳
반시당(反始堂)	6	책을 두는 곳
아사(衙舍)	14	병사의 집무소
거입정(去入亭)	6	휴식을 취하는 누각
통군루(統軍樓)	12	병사 지휘소
재문루(才門樓)	12	병영 출입 轅門
비장청(裨將廳)	18	비장들의 사무실
집사청(執事廳)	10	실무를 보는 사무실
영리청(營吏廳)	18	영리들의 사무실

78) 『비변사등록』 효종 8년 9월 21일.

79) 조선전기의 『경국대전』과 후기의 『대전회통』을 비교하면, 해미 병영성과 청주 병영성의 관원 및 영속 현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유동호, 앞의 논문, 2014, 101~104쪽 참조)

80) 임선빈, 앞의 논문, 2011, 89쪽.

81) 『여지도서』 충청도 ; 유동호, 앞의 논문, 2014, 63~64쪽.

진무소(鎭撫所)	18	진무들의 처소
작대장교청(作隊將校廳)	6	작대장교 사무실
대변군관청(待變軍官廳)	9	대변군관 사무실
사령방(使令房)	10	사령들의 처소
기수방(旗手房)	5	기수들의 처소
영노방(營奴房)	12	병영 노비들의 처소
기비교방(妓婢敎房)	3	기생들의 처소

이 밖에 군기고(軍器庫) 13칸, 공방고(工房庫) 18칸, 호방고(戶房庫) 7칸, 보공고(補供庫) 6칸, 쇄마고(刷馬庫) 9칸, 해현고(解懸庫) 7칸, 영선고(營繕庫) 5칸, 관청(官廳) 6칸, 공수청(供需廳) 8칸, 간영리청(間營吏廳) 18칸, 진무청(鎭撫廳) 18칸 등의 건물들이 청주병영성 안에 있었다.

#### 다. 해미 병영의 군사적 위상 강화

예나 지금이나 모든 국가기관은 설립 목적에 적합한 장소에 들어선다.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해 제 기능(임무)을 설정하고, 수많은 인력과 시설물을 운용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은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조선전기 해미 병영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해미 병영의 위상과 영향을 파악하려면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료의 부족으로 상세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충청병사의 권한 강화 과정과 지역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통해 해미 병영의 군사적 위상과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병사의 권한 강화 모습을 살펴보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전신은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였다. 영진군체제에서

병마도절제사는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하번(下番) 지방군과 중앙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유사시에 병력을 쉽게 동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강력한 수령 통제권이 없어 평시에 습진(習陣)과 군기(軍器) 정비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sup>82)</sup>

진관체제의 도입은 병마도절제사가 본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세조 대 진관체제를 시행하면서 하번의 중앙군을 지방별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각 읍의 수령이 병마직함(兵馬職銜)을 겸직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결과 병마도절제사는 병마직함을 부여받은 수령들을 통솔하면서 다양한 병종으로 구성된 지방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도절제사의 지휘권은 완전하지 않았다. 제조병마(提調兵馬)의 직함을 겸대한 관찰사가 제읍 수령을 포폄하고, 문신 출신의 수령들이 무신을 경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조 3년(1457) 병마도절제사를 병마절도사로 변경하고, 관찰사가 겸대하던 제조병마의 직함을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병마절도사의 군권이 강화되었으며, 병영이 주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sup>83)</sup>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청병사와 해미 병영도 충청도 육군 사령관과 주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권과 안정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연해지역 육·수군 합동방어 작전에 따른 하삼도 병사들의 통합지휘권 확보는 충청병사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초기 조선군은 수군이 바다에서 왜구의 배를 나포하고, 육군이 상륙한 왜구를 요격하는 수륙합동작전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당시 병사와 수사는 직접적인 지휘 관계에 놓여

82) 오종록, 앞의 논문, 1985, 91쪽.

83) 오종록, 앞의 논문, 1985, 92쪽.

있지 않아 원활한 작전수행이 어려웠다. 이에 조정은 육·수군 간 유기적인 작전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병사에게 통합지휘권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부여하였다.<sup>84)</sup> 이로 인해 충청병사도 통합지휘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충청병사와 해미 병영의 군사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군의 전력 약화 역시 해미 병영의 군사적 위상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 초기 수군 강화 정책으로 수군의 전력이 급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진관체제의 운영상의 문제와 수군역(水軍役)의 모순으로 수군 전력은 점차 감퇴하였다. 특히 진관체제는 성립 기반이 광범위하여 을묘왜변 등의 실전에서 제 기능을 못하였다.<sup>85)</sup> 이러한 상황에서 수군역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선상 근무 때문에 발생하는 육체적 고통과 세습을 통한 인력충원방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로 수군의 전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수군의 전력 약화는 연해지역 방어 작전개념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조선 초 주요 해안방어 작전은 수군이 군선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적선을 격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왜구의 침략 양상 변화와 지역민들의 수군역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효율성이 기존의 해안방어 작전은 점차 효율성을 상실하였다. 결국, 중종 대 수군 중심의 해상방어 작전의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되고, 성곽 중심의 방어 작전이 부각되었다.<sup>86)</sup> 이러한 변화는 충청도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다음 기사는 당시 사정을 잘 보여준다.

병조가 아뢰기를, 주사(舟師)는 우리나라의 장기(長技)가 아닙니다. 대저 왜구를 사로잡지 않는다하여 우리의 중한 위엄이 손상

84) 『중종실록』 권 11, 중종 5년 6월 25일(기유).

85) 차문섭,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7, 244쪽.

86) 김도연, 앞의 논문, 2014, 72쪽.



될 것은 없으며, 수로(水路)로 추격하다가 혹시 한 번 패하게 된다면 크게 우리의 위엄을 손상하는 것이니, 만전의 계책을 하려면 마땅히 편안히 있으면서 적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전법을 써야 하는데, 올라온 계본(啓本)을 보건대, 아군의 선박 1백여 척으로 저들의 배 30여 척을 에워쌌다가 짐짓 한 모퉁이를 열어 주고서야 겨우 사로잡았으며 게다가 위험마저 있었으니, 위엄을 보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sup>87)</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병사의 지방통제력과 군사적 권한이 강해지고, 연해지역의 방어 작전개념이 성곽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해미 병영은 충청도 방어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였다. 이처럼 충청병사의 권한과 해미 병영의 군사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미현은 군사적 성격이 강한 고을로 변해갔다. 특히, 해미현 내에 행정 공간인 읍성과 충청병영이 병존하면서 특수한 사회현상이 발생하였다. 대부분 충청병사(종2품)의 품계가 해미현감의 품계(종6품)보다 높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미현감 기피현상과 병사의 월권행위였다.

해미현감은 충청병사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독자적인 행정력과 강한 향촌 지배력을 갖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조선 전기 해미현감은 기피하는 직책이었으며, 인물난으로 교체가 잦았다. 다음 기사가 당시 상황을 잘 알려준다.

참례도(參禮道)가 극도로 피폐하므로 문관을 파견하여 이를 회복시키는 방책은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명망 있는 문관의 수가 한정되어 적임자를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삼관(三館)의 박사(博士) 이하에서 명망 있는 인물을 선발하여 '겸찰방(兼察訪)'이라는 직함을 주고, 30개월을 임기 만료로 하여 교체하되, 본관(本館)에서 맡은 직책과 동일하게 하면 선발이 어렵지 않을 것이

87) 『중종실록』 권 14, 중종 6년 12월 17일.

며 회복도 확실할 것입니다. 성황도(成歡道)의 피폐는 삼례도보다 더욱 심하여 조만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두 도의 찰방을 삼관에서 특별히 가려 보내십시오. 해미현 역시 매우 피폐하여 장차 폐읍이 될 형편이므로 이미 문관을 파견하였으나, 관인(官人)과 촌민(村民)의 절반 이상이 병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일일이 조사하여 환속(還屬) 조치한 후, 명단을 보고하도록 하십시오.”<sup>88)</sup>

이처럼 해미현의 관원과 백성 상당수가 해미 병영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서, 해미현감의 행정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충청병사의 권한 남용도 큰 문제였다. 실례로 성종 6년(1475년) 충청병사 김서형(金瑞衡)은 사적으로 군졸들을 동원하여 사냥을 즐기고, 수령들에게 무리한 청탁을 일삼았다. 더욱이 사냥 중에 금산(禁山)에 불을 질러 개심사를 불태웠다.<sup>89)</sup> 인조 16년(1638)에는 충청병사 유정익(柳廷益)이 염초(焰硝) 굽는 것을 핑계로 해미향교 뒷산 나무를 베어 지역 유생들이 반발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sup>90)</sup> 이러한 사례들은 충청병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병사의 월권행위가 빈번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해미현은 저명한 인물들에게 주목받는 장소가 되었다. 본래 해미는 해로교통의 요지였으나, 충청도 서쪽 연해지역에 위치하여 널리 알려진 곳이 아니었다. 그러나 해미 병영이 자리하면서 저명한 인물들이 해미현과 해미병영성을 주제로 많은 시문을 남겼다. 서거정의 「해미제영(海美題詠)」, 이승소의 「해미절도사영망해(海美節度使營望海)」, 김종직의 「송변절도사(수)부해미영(送邊節度使(脩)赴海美營)」, 성현의 「청허정기」, 권오복의 「청

88) 『명종실록』 권 10, 명종 5년 10월 2일(임술).

89) 『성종실록』 권 54, 성종 6년 4월 11일(기축).

90) 『인조실록』 권 37, 인조 16년 9월 15일(갑자).

허정연회도(淸虛亭宴會圖)」, 구봉령의 「해미동헌운(海美東軒韻)」, 양경우의 「해미아헌모춘(海美衙軒暮春)」 등이 대표적인 시문이다. 이러한 시문들은 해미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또한 충청병영이 해미지역에 자리매김하면서 나타난 변화의 한 단면이었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전기 충청도 연해지역 방어체계 변화 속에서 해미 병영의 구축·정착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 초 연해지역 방어체계 속에서 충청병영의 이설배경, 인적·물적 구조, 군사적 위상 등을 살펴보았다.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전기 조선왕조는 충청도 연해지역에 자주 출몰하는 왜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수군이 바다에서 군선으로 적을 나포하고, 육군이 상륙한 적을 요격하는 수륙합동작전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작전수행을 위해 연해지역의 요충지에 영진군과 수군을 배치하고, 대흥·홍주 등에 일정한 간격으로 14개 읍성을 축조하였다.

태종 대 새로운 해방작전 개념을 기반으로 충청병영을 이산에서 해미로 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미병영성과 그 부속시설이 점차적으로 축조·건립되었다. 해미 병영의 최우선 기능은 연변제진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보령의 수영과 기각의 형세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왜구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해미 병영에 우후·군관·유방정병·아전 등의 여러 관원과 군병을 배치하였다. 이 가운데 신백정·수성군 등

의 병종이 통폐합된 유방정병이 주를 이루었다. 조선전기 해미 병영성은 둘레 3,352척, 공해규모 500~600칸에 달하는 대형 성곽이었으며, 내부에 아사·객사·창고·우물 등의 필수시설과 장관청·군관청·교련청 등의 부속건물을 갖추고 있었다.

병마절도사의 권한이 강화되고, 충청도 연해지역 방어 전략이 전선 중심에서 성곽 중심으로 바뀌면서 해미 병영의 군사적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이에 따라 충청병사와 해미현감의 품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들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미현감 기피현상, 충청병사의 월권행위 등이었다. 한편, 많은 명현(名賢)들이 해미 병영을 주제로 시문을 남겼고, 이는 해미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해미 병영의 군사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의 한 단면이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高麗史』；『太祖實錄』；『太宗實錄』；『世宗實錄』；『文宗實錄』；  
『世祖實錄』；『成宗實錄』；『中宗實錄』；『明宗實錄』；『仁祖實錄』；  
『備邊司謄錄』；『承政院日記』；『新增東國輿地勝覽』；『經國大典』；  
鄭道傳, 『三峯集』；『輿地圖書』

### 2. 단행본

목포대학교 박물관·강진군, 『강진 병영성』, 1991.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심정보, 『한국 읍성의 연구: 충남지방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9.  
(<http://uci.or.kr/G701:C-00071056943>)  
육군본부, 『한국군제사: 근세 조선전기편』, 1968.  
정해은, 『조선후기 국토방위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3. 논문

권영국, 「고려 말 지방군제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1, 1994. (UCI: I410-ECN-0102-2009-910-009211413)  
김도연, 「조선전기 충청도 연해지역의 읍성·영진성 축조와 관방체제」, 부산대 석사논문, 2014. (DOI: 10.23172/pusan.000000091714.21016.0000093)  
김학태·박지훈·장동호, 「조선시대 충청 수군진 입지의 지형학적 연구」, 『한국지형학회지』12, 2005.  
(<http://uci.or.kr/G704-001363.2005.12.1.006>)  
민장원, 「조선시대 서해안 해방 전략과 충청도 태안의 전략적 위상 변화」, 『역사와 담론』105, 2023. (<http://doi.org/10.22899/hosuh..105.202301.35>)

- 박용한, 「고려후기 수군개혁과 전술변화」, 『군사』54, 2005. (UCI: G704-001528.2005..54.008)
- 손승철, 「웅천읍성과 제포왜관의 설치와 운영」, 『웅천읍성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11.
- 오종록, 「조선초기 병마절도사제의 성립과 운용(상)」, 『진단학보』59, 진단학회, 1985. (UCI: I410-ECN-0102-2009-910-008987890)
- 유동호,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변화와 하삼도 병영 운영』, 충북대 박사논문, 2014. (UCI: G701:B-00093063353)
- 유동호, 「조선후기 하삼도 지역의 군사편제와 군병조직」, 『군사』93, 2014. (UCI: G704-001528.2014..93.004)
- 이장희, 「임란 중 산성수축과 견벽청야에 대하여」, 『부춘 신연철 교수 정년퇴임기념 사학논총』, 1995. (UCI: G701:B-00047916853)
- 이재룡, 「조선전기의 수군: 군역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5, 1970. (UCI: G701:C-00052975776)
- 이해준, 「해미읍성의 문화사적 성격과 자원 활용」, 『해미읍성 9~12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2009.
- 임선빈, 「조선시대 해미읍성의 축성과 기능변천」, 『역사와담론』58, 2011. (UCI: G704-001545.2011..58.004)
- 임선빈, 「조선초기 왜구의 동향과 충청지역 상황」, 『이순신연구논총』38, 2023.
- 차문섭,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한국사』23,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차용걸, 「행성·읍성·진성의 축조」, 『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차용걸, 「고려말 왜구방수책으로서의 진수와 축성」, 『사학연구』38, 1984. (UCI: G701:C-00061069964)
- 한정훈, 「고려말·조선초 경상도 해안 역로망의 재편성」, 『지역과역사』30, 2012. (UCI: G704-001416.2012..30.012)

<Abstract>

The Transformation in the Coastal Defense System of  
Chungcheong Province in Early Joseon and the Construc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Haemi Military Command  
Headquarters(海美兵營)

Yu, Dong-Ho

To examine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Haemi Military Command Headquarters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is study explores the background of its relocation, the personnel and material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significance of the Chungcheong Provincial Military Command Headquarters.

To defend against Japanese Raiders(倭寇), the Joseon military implemented a land-sea coordinated defense strategy, in which the naval forces used warships to capture enemy vessels at sea, while land forces intercepted any enemy troops that landed. Within this new defense strategy, the Chungcheong Provincial Military Command Headquarters was relocated from Isan to Haemi.

The Haemi Military Command Headquarters gradually expanded its facilities and personnel. As a result, various structures were built within the large fortress, and a significant number of soldiers and a diverse group of administrative officials were stationed there. Over time, as the authority of the Provincial Commander-in-Chief increased and the coastal defense strategy shifted from a

navy-centered approach to a fortress-based system, the military significance of the Haemi Military Command Headquarters grew even further.

Keywords: Haemi Military Command Headquarters(海美兵營), Japanese Raiders (倭寇), Fortified Town(邑城), Provincial Defense Commander(兵馬節度使), Coastal areas